

# 행복주택으로 인구증가 노린다

## 순창군, 내년 29㎡ 4세대 · 44㎡ 26세대 임대주택 건설

순창군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가 반가운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과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 인구유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신규 아파트를 기준으로 84㎡ 전용면적이 2억여원을 호가하고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이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주 등 인접 도시와의 도로망 개선으로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해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행복주택은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96번지(구 순창군 노인회관)일원에 전용면적 29㎡ 4세대, 44㎡ 26세대의 임대주택이다. 사업비 40억여원을 투입해 올 연말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내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되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로 인해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하



순창군 행복주택 조감도

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군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만큼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출산을 저하로 정주민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가동

## 10월 초에 ... 남원 임실·순창 재활용품 자동 선별처리... 친환경도시 조성 도움

남원시는 대산면에 시설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기계분야)이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선별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17년 8월 대산면에 총 사업비 30억여원(국비 9억, 시군비 21억, 도 6억)을 투입해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을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쳤으며, 시설이 가동되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화선별시설은 남원시 대산매립장 내 연면적 1,411㎡에 투입회포, 발



남원시 대산면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리삭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선별기, 감용기 등의 장비가 시설돼 하루 12톤을 처리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인접 지역은 쓰레기 반입량, 반입비율에 따라 시설운영비를 부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기계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분리작업 수행, 재활용률 향상, 에너지 회수를 제고 등 친환경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류장기 환경과장은 "분리배출의 핵심인 4가지 원칙(비움, 헹굼, 분리, 섞지 않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으로 재활용품 수거 반입량을 줄이는 시민의식 전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주민공청회 연다

순창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앞서 주민공청회를 순창읍 청소년센터에서 지역주민, 관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200여명을 초청해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황숙주 순창군수 전반적인 사업설명

과 주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농사가 행복한 순창 ▲산업을 활발한 순창 ▲관광이 돈되는 순창 ▲교육의 일번지 순창 ▲문화가 숨쉬는 순창 ▲복지가 먼저인 순창 등 6개 분야에 친환경유기농업 특구 조성,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45개 사업이다.

공청회를 통해 공약사업 수행시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조기 해소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10월 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임실군편을 공개복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 KBS 전국노래자랑 들썩 들썩

## 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공개복화

올해 임실N치즈축제의 전국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KBS 전국노래자랑-임실군편이 지역민들의 뜨거운 참여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임실군은 오는 10월 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국민MC 송해의 사회로 진행될 KBS 전국노래자랑-임실군편의 공개복화를 앞두고, 지난 30일 예선을 가졌다.

전국노래자랑은 2018 임실N치즈축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임실군이 아낌나게 유치한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본선 복화가 진행되는 10월 3일에는 만개한 천만송이 국화가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를 가득 메우며, 신명난 노래축제와 함께 멋진

가을날의 장관을 선사할 전망이다. 특히 임실군편에는 김연자와 박상철, 서지오, 현당, 민수현 등 유명 가수들의 초대 공연과 함께 임실치즈는 물론 다양한 지역 특산물도 소개될 예정이다.

심민군수는 "2018 임실N치즈축제를 전 국민의 축제로 알리고,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천만송이 국화향기가 가득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많이 들 찾아오셔서 전국노래자랑도 즐겁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올해 첫 피는 국화꽃도 맘껏 만끽하시면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홍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첫번째는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하였지만 등록농약이 부족한 점으로, 작물별 최소한의 약해 감증을 통해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PLS시행 이전에 수확, 저장되어 제도 시행 후 유통되는 경우 잔류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2018

년도 12월 이전 수확한 농산물(쌀, 사과, 배 등)은 PLS대상이 미적용되며, 2019년도 1월 수확 농산물(마늘, 양파, 월동배추 등)만 PLS에 적용된다.

세번째는 비의도적 오염농약 4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DDT, BHC, Quintozene, Endosulfan은 토양에 장기 잔류해 농산물에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농약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공무원 워크숍

남원시는 지난 28일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및 민간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북구 중독센터 상임팀장인 김정화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통합사례관리는 한 개인의 문제, 욕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개인의 변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서 254건의 사례관리와 1,631건의 서비스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주민복지와 강원구 과정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희망찬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전북도 시행 간선임도 신설부분 1위

임실군이 전북도가 시행한 2017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2개 분야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라북도와 민간 전문 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시행한 2017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간선임도 신설사업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작업임도 신설사업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며, 2개의 임도사업 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평가받은 지역은 지난해 개설한 운암면 금기리 간선임도 2.3km와 임실읍 이인리 작업임도 1.2km이다.

임도의 설치계획 수립과 타당성평가, 설계서 검토, 수법사례 등의 자료평가 항목과 노선 선정의 적정성, 노면의 안정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받았다.

심민군수는 "임실군은 전체 면적 중 68%가 임야로 산림의 보호는 물론 임도의 중요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임업 경영기반 조성과 산림관리에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임도조성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